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. /뉴시스

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 앞 도로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. /뉴시스

K서 박정희 마케팅… 李 "나쁜 사람이지만 공도 있어" 金 "산업혁명 이룬 위대한 지도자"

이 "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"
김 "가난 없애고 세계 최강 산업혁명 이룬 세계적 지도자"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식 선거 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·경북(TK) 지역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다.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TK 표심 잡기에 나섰다.

이 후보는 이날 첫 유세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. 그는 "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"며 "아주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,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니냐"고 말했다.

이 후보는 "저는 젊은 시절에는 (박 전 대통령이) 독재하고 군인과 사법기관을 동원해 사법 살인을 하고 고문을 하고 장기집권을 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"면서도 "만약 박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안 하고 민주적 과정으로 집권했다면,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 모두가 칭송하지 않았겠느냐"고 했다.

그러면서 "그 역시 지난 일이고,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변할 수 있다"고 했다.

이 후보는 진영·이념에서 벗어난 실용 기조와 지역주의 탈피를 거듭 강조했다. 이 후보는 "좌측이든 우측이든, 빨강이든 파랑이든,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"라며 "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.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"라고 했다.

그는 "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여러 일 중에 훌륭한 것은 베끼기로 했다"면서 자신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.

이 후보는 "안동에서 태어나 이 지역의 물과 풀·쌀을 먹고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(지난 대선) 20% 지지를 못받는가"라며 "'우리가 남이가' 라는 소리가 많은데 '재명이가 남이가'라고 해달라. 다른 것도 써보시라. 이재명도 한번 일을 시켜보시라"라고 호소했다.

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 후보는 이틀째 대구에 머물며 보수 지지층을 다독이는 데 집중했다.

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·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해 "젊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했다"며 "철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"고 말했다.

그는 "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'당신의 묘소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묘소에 꽃을 바칩니다'라고 참회했다"며 "대구·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(대구)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"고 했다. 이어 "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"라며 "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,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 대구·경북이 낳은 인물"이라고 강조했다.

김 후보는 출정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"지금 국가의 위기를 구할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실 것"이라며 "국민의힘 김문수라고 대구·경북 시도민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있다"고 말했다.

김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해 이 지역 출신 항일운동가 김태련 지사 등의 묘에 참배했다.

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"국내 유일의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여서 역사적 의미가 크나큰 곳"이라며 "독립지사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것처럼 저 김문수 역시 구국을 위한 필사즉생의 각오로 뛰겠다"고 밝혔다. /뉴시스

尹 계엄 사과한 김문수… 한동훈에 선대위 참여 명분 주나

김문수 "계엄으로 고통 겪고 있는 국민께 진심 죄송"
김용태 "한동훈·친한계, 통합 선대위 합류 명분 줄 것"
한동훈 "계엄·탄핵 반대 사과… 尹 출당 절연해야" 요구
김 후보 한동훈 포용 지속 노력할 듯… 한 선택 주목

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계엄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.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, 계엄·탄핵 반대 입장 등에 대한 사과를 선대위 참여 조건으로 제시했다.

김 후보는 1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·경북 선대위 출정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·3 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"국민의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건 시장에 가면 많이 느낄 수 있다"며 "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넘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"고 말했다.

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"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"고 사과했다.

김 후보는 다만 "윤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"고 선을 그었다. 그는 "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도리도 아니다"라고 밝혔다.

그러면서 한 전 대표 측에서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킬 경우 김 후보를 돕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"저는 한 후보와 같이 윤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은 없다"고 했다. 다만 "한 후보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,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맞춰 결정하겠다"고 했다.

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.

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"계엄 사태로 국민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에 대해 어제 김 후보가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고 이 기조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본다"고 말했다.

김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등에 대해 사과했다. 그는 전날 뉴시스와 인터뷰에서도 "저는 김 후보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"며 "친한계도 통합 선대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"고 밝혔다.

그러나 한 전 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 절연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.

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"불법 계엄 방관과 탄핵 반대에 대해 사과하고, 윤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, 자유통일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"고 했다.

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 '도리가 아니다'고 밝힌 것을 두고 "개인에게 도리를 다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리를 다해야 한다"며 "대선주자는 최소한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"고 적었다.

한 친한계 의원은 뉴시스에 윤 전 대통령 출당 등 요구에 대해 "우리가 얘기하는 건 본선에서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"이라며 "김 후보가 이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답해야 한다"고 했다. 그는 이어 "한 전 대표는 선거 운동을 이미 나름의 위치에서 하고 있다. 선대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두고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된다"고 했다. /뉴시스